



어려운 경제 상황의 두려움을 용감히 맞서며

Facing down fear in a tough economy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5 August 2011

릭 디어본 (Rick Dearborn)

요즘의 경제적 상황은 전 세계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으며, 모든 나라의 기업계 및 정치계의 지도자들에게 해결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란 제품들과 서비스들의 교환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것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없다면, 경제란 없다. 다행스럽게도 표현될 수 있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강한 경제로서 나타나는 좋은 아이디어들의 수에는 절대로 제한이 있을 수 없다.

경제를 아이디어들의 교환으로 이해함은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매우 좋은 시발점이다.

좋은 아이디어들은 선하고 명확한 사고로부터 온다, 그리고 참된 신성의 마음이신 하나님과 공조를 이룬 것보다 더 명확한 사고란 없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공조하도록 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선하고, 쓸모 있고, 실용적이고 적절한 아이디어들로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이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 인류를 이롭게 하고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돕게 된다.

메이 베이커 에디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즉 “마음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며, 그것의 영구하고 조화로운 운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관성(慣性)이란 없다.”(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283 쪽) 만일 마음이 운동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만일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 아이디어들이라면, 참된 움직임은 정말로 아이디어들의 흐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홀로 선(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며, 그 무엇도 그것들의 흐름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들의 흐름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관성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두려움은 관성의 한 형태이다. 만일 우리가 두려움을 받아 들인다면, 그리고 그것과 공명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력을 어둡고 흐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외로움, 단절감, 무력함을 느낀다.

만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만일 이렇다면” 식의 시나리오에 대한 것, 즉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다. 두려움은 보통 예감, 즉 아직 일어난 적이 없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함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현재로부터 떼어내어 가상적인 미래 안으로 집어 넣는다. 따라서 두려움은 절대로 비생산적이고, 항상 방해할 뿐이다.

두려움에 대해 내가 발견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첫째,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현재에 잡아두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험 속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도록 한다. 둘째,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한다; 그것은 기도의 한 형태이다. 두려움이 무엇을 제안하던지 간에, 우리 바로 앞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바로 며칠 전, 아내와 식료품 쇼핑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경제와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의 통로를 지나면서, 나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돌아서서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놀라운 제품들을 수 많은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의 증거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좋은 생각 이상의 것이었다, - 즉 나는 제품들을 만들어냄을 통해 그리고 상점을 개업함을 통해 표현되어 온 하나님의 자질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우리 주위의 수 백 가지의 상품들을 통해 표현된 이지, 아름다움, 질서, 그리고 유용성을 보았다. 바로 그 식료품 상점 안에서 나는 인류를 통해 나타내진 하나님 선하심의 증거에 의해 둘러 쌓여 있음을 느꼈다. 두려움은 즉각적으로 나의 생각을 떠났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이 있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쇼핑을 해나갈 수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긍정적, 낙관적 사고가 아니다 - 적어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온 주위를 감싸고 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증거를 인식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온 주위를 감싸고 있는 영적 현실성과 선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위로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공조를 가져온다.

우리가 모두 모든 지위에서, 즉 세계의 지도자들로부터 각 개인의 집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실제적 해법을 찾기 위해 일 할 때, 우리의 사고를 신성의 사랑과 일치시킴을 유지함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잠언 4장 23절) 이미 넘치게 존재하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사고를 두려움의 장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들을 향해 열어준다.